

86년 美國 石油會社 손익실적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石油가격의 하락과 지속적인 石油産業의 재편으로 인해 美國의 주요 25개 石油會社(Oil & Gas Journal Group)의 지난해 순이익은 크게 감소하였다. 25社の 86년도 순이익은 10,710백만달러로 85년도의 16,260백만달러에 비해 34.1% 감소하였다. 86년도 4/4분기의 순이익은 2,260백만달러로 전년대비 46.2%나 격감했다.

原油, 天然가스, 석유제품등의 가격하락으로 매출액도 349,840백만달러로 전년 보다 24.2% 감소하였다. 4/4분기 매출액은 858,950백만달러로 29.3%가 줄었다.

매출액과 순이익의 감소는 上流部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原油와 天然가스의 가격폭락으로 石油會社들의 上流部門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 지지않았다.

下流部門의 이익은 크게 증가하였다. 제품가격의 하락은 原油가격의 폭락으로 정제와 化學원료비의 하락에 의하여 충분히 상쇄가 되었다. 석유제품가격의 하락은 또한 수요증가를 유발하였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石油會社들의 판매량도 증가되었다.

85년에는 25社중 5社만이 적자를 시현한데 비해 86년에는 9社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3社は 이익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3社만이 이익이 증가하였다.

86년 4/4분기에는 原油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즉각적으로 이익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정제마진이 감소하여 정제부분의 이익이 잠식되었다.

14個社の 이익은 前年同期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5社は 적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6社만이 이익증가를 시현하였다.

資産평가절하와 石油産業의 재편은 4/4분기의 순익감소에 큰 요인이 되었으며, Chevron은 1933년이후 처음으로 分期赤字를 기록하였다.

◇美國內 탐사·생산부문 수익의 감소

지난 해 석유가격의 폭락으로 美國內 탐사·생산부문의 수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Mobil은 이 부문에서 85년에 716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나 86년에는 24백만달러의 赤字를 보았다. Mobil의 86년도 국내 原油 및 NGL생산량은 85년 409천B/D에서 395천B/D로 감소하였으며, 天然가스생산량은전년대비 9.7%가 감소하여 1,772BCFD에 머물렀다.

Amoco는 85년 824백만달러의 이익을 냈으나 86년에는 26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다. 同社の 原油생산량은 85년의 401천B/D에서 86년에는 394천B/D로 감소하였으며, 天然가스의 純생산량은 7.4%가 준 1,732 BCFD를 기록하였다.

Chevron은 原油와 天然가스의 생산량감소와 함께 가격폭락으로 85년 1,258백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한데 반해 86년에는 106백만달러의 赤字를 보았다. 同社の 국내 原油생산량은 85년 644천B/D에서 86년 626천B/D로 감

(단위 : 백만달러, %)

| | 1986 | | | | 4/4 분기 | | | |
|------------------------------|---------------|--------------|----------------|--------------|--------------|--------------|---------------|--------------|
| | 순이익* | | 매출액 | | 순이익* | | 매출액 |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Exxon | 5,360 | +10.1 | 76,246 | -17.9 | 1,480 | -18.0 | 18,836 | -22.6 |
| Mobil | 1,405 | +35.1 | 49,376 | -18.5 | 201 | -52.7 | 12,009 | -27.4 |
| Shell | 883 | -46.5 | 17,353 | -15.3 | 254 | -61.0 | 4,512 | -18.1 |
| Amoco | 747 | -61.8 | 20,230 | -29.9 | 165 | -57.7 | 4,839 | -34.6 |
| Texaco | 725 | -41.2 | 32,600 | -31.4 | 50 | -83.7 | 7,800 | -37.6 |
| Chevron | 715 | -53.8 | 27,610 | -39.1 | (86) | - | 5,925 | -44.8 |
| ARCO | 615 | - | 15,092 | -32.9 | 64 | -54.9 | 3,724 | -31.7 |
| Sun | 385 | -26.9 | 10,440 | -30.8 | 70 | -83.1 | 2,210 | -49.8 |
| Conoco+ | 355 | -40.7 | 9,819 | -24.0 | 24 | -79.5 | 2,324 | -32.0 |
| Phillips | 228 | -45.5 | 10,015 | -36.6 | 11 | -88.4 | 2,376 | -39.3 |
| Occidental | 181 | -74.0 | 15,344 | +5.6 | 20 | -61.9 | 4,169 | +10.4 |
| Unocal | 176 | -45.9 | 8,353 | -28.2 | 49 | - | 2,056 | -29.5 |
| Marathon§ | 73 | -94.3 | 8,000 | -23.8 | 81 | -74.3 | 1,900 | -26.9 |
| Coastal | 72 | -49.7 | 6,668 | -8.3 | 67 | +38.8 | 1,855 | -6.3 |
| Pennzoil | 45 | -59.9 | 1,921 | -14.6 | 47 | - | 497 | -7.1 |
| Ashland | 27 | -45.9 | 1,604 | -22.1 | 27 | -45.9 | 1,604 | -22.1 |
| Louisiana Land & Exploration | (21) | - | 827 | -29.9 | (46) | - | 207 | -33.0 |
| American Petrofina | (25) | - | 2,021 | -16.5 | 5 | - | 528 | -19.7 |
| Texas Oil & Gas V | (31) | - | 1,000 | -38.0 | (75) | - | 218 | -35.1 |
| Tenneco | (39) | - | 14,500 | -4.6 | 3 | -93.0 | 3,600 | -14.3 |
| Diamond Shamrock | (116) | - | 2,513 | -24.8 | (42) | - | 590 | -32.3 |
| Murphy | (195) | - | 1,389 | -37.5 | (208) | - | 341 | -39.2 |
| Amerada Hess | (219) | - | 4,062 | -47.4 | 58 | - | 923 | -53.4 |
| Kerr-McGee | (292) | - | 2,535 | -24.2 | 9 | -68.1 | 589 | -34.5 |
| Standard Oil Co | (345) | - | 10,022 | -27.5 | 31 | - | 2,264 | -38.6 |
| Total | 10,710 | -34.1 | 349,540 | -24.2 | 2,260 | -46.2 | 85,895 | -29.3 |

*특별손실과 특별이익이 포함된 회사도 있음. + 稅後영업이익 § 海外所得稅前영업이익

|| 4/4分期실적 V 稅前영업이익

소하였으며, 천연가스의 총생산량도 8.4%가 적은 2.335 BCFD를 기록하였다.

Phillips는 85년 606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린데 반해 86년에는 146백만달러의赤字를 기록하였다. Murphy는 85년 680만달러의 이익을 냈으나 86년에는 140만달러의赤字

를 기록하였다.

Kerr-McGee는 85년 47백만달러의 이익을 낸데 반해 86년에는 38백만달러의赤字를 보았다. Texas Oil & Gas도 85년에는 368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나 86년에는 31백만달러의 결손을 보았다.

Exxon의 86년도 이익은 699백만달러로 85년에 비해 66.9%나 감소했다. Shell의 국내 탐사·생산부문 순이익도 427백만달러로 85년 對比 70.1%나 줄었다. Standard Oil의 순이익은 85년 2,442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13백만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 해외 탐사·생산부문 수익

해외 탐사·생산부문의 이익도 역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美國內 同부문의 이익감소와 같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Exxon의 해외 탐사·생산부문 이익은 지난 해 2,349백만달러로 85년보다 16.9% 감소하였다. 해외부문에서의 수익감소는 原油가격의 하락에 기인된 것이지만, 달러의 약세에 따른 天然가스부문의 실적회조와 原油생산량의 증가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要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되기도 하였다. 原油생산은 北海,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增産에 힘입어 9% 증가하였다.

Mobil의 해외 탐사·생산 수익은 856백만달러로 85년보다 20.9% 감소하였다. 原油가격의 하락을 상쇄한 要因으로는 탐사비용의 하락, 天然가스가격의 상승, 앙골라에서 石油事業으로 벌어들인 185백만달러의 수익등을 들 수 있다.

Chevron은 86년에 325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나 85년에 비해서는 44.3%나 감소하였다. 同社의 해외 총 原油 생산량은 캐나다에서의 생산량이 70천B/D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5년보다 10천B/D가 증가하여 763천B/D를 기록하였다.

Amoco의 해외 탐사·생산 수익은 86년에 69.8%나 대폭 감소하여 219백만달러에 그쳤다. 同社의 해외 총 原油 및 NGL생산량은 416천B/D로 85년보다 30천B/D가 감소하였다.

◇ 美國內 정제부문

대부분의 석유회사들은 정제부문에서의 수익증가덕분으로 탐사·생산부문의 수익감소를 다소 상쇄하였다.

Shell은 석유제품매출액이 9,109백만달러로 85년에 비해 21.3%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同부문에서 前年보다 18.6%가 증가한 319백만달러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同社의 석유제품 판매물량은 1,173천B/D로 85년에 비해 23.1% 증가하였다. 同社의 휘발유 판매량은 20.3%가 늘어난 620천B/D를 기록하였으며, B-C油 판매량은 126% 증가한 174천B/D에 달하였다.

原油가격이 4/4분기에 상승함에 따라 Shell의 정제부문 수익도 4/4분기에는 감소하였다. 同社의 4/4분기 정제부문 수익은 고작 35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85년 同期의 167백만달러에 비하면 엄청난 감소이다.

Exxon의 국내 정제 및 판매부문 이익은 480백만달러로 85년보다 251백만달러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同社의 총 제품판매량은 1,105천B/D로 85년보다 1% 감소하였다.

Mobil의 同부문 이익은 좋은 마진과 휘발유 판매량의 10% 증가에 힘입어 85년보다 209백만달러가 증가한 36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同社의 석유제품 판매량도 841천B/D로 85년에 비해 6.6% 증가하였다.

ARCO는 높은 마진, 운영비의 저렴, 판매량의 증가 등에 힘입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회사중의 하나가 되었다. 同社의 정제 및 판매부문의 이익은 353백만달러로 85년에 비해 34.7% 증가하였다.

Chevron의 이익은 85년보다 112백만달러가 적은 20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同社는 연료유 재고방출로 86년에 이익이 70백만달러 감소하였다.

◇ 해외 정제부문

지난 해에는 해외 정제부문의 이익도 역시 증가하였다.

Exxon의 86년도 해외 정제 및 판매부문의 이익은 85년보다 853백만달러가 증가한 1,496백만달러를 실현하였다. 「原油가격의 하락과 달러의 약세로 인해 현지의 원재료 가격이 제품가격보다 더 급격히 하락하여 마진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었다」.

Mobil은 86년에 928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렸으며 이는 85년보다 무려 752백만달러나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대폭적인 증가는 原油가격에 비해 높은 제품가격과 현지 통화의 강세덕분이다.

Chevron의 同부문 수익은 85년 169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480백만달러로 급증하였다. Phillips는 85년과 비슷한 수준인 15백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Amoco와 Texaco의 同부문 수익은 국내정제이익도 포함된 것으로서, Amoco는 지난 해 85년보다 100백만달러가

많은 825백만달러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4/4分期에는 原油가격의 상승으로 마진이 잠식되어 37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쳐 85년 同期보다 37%나 감소하였다.

Texaco의 86년 수익은 4/4분기에 마진의 급격한 악화로 10백만달러의 손실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85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82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同社의 전세계 제품판매량은 86년에 274백만B/D로 85년에 비해 77천 B/D 증가했으며, 美國內 판매량은 123백만B/D로 85년보다 71천B/D 증가하였다.

◇化學部門

化學部門에서는 25社 모두 수익이 증가하였다. Exxon의 同부문 이익은 85년보다 88.8%가 증가한 47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美國內 화학부문 수익은 250백만달러로 前年보다 103.3% 증가했으며, 해외 화학부문의 수익은 220백만달러로 74.6%가 늘었다.

Mobil, Shell, Amoco, Chevron등 4社は 化學部門에서 기록적인 수익증가를 보였다. Mobil은 국내외의 석유화학 및 프라스틱의 판매마진과 물량이 증가한데 힘입어 85년보다 162%가 증가한 139백만달러의 이익을 시현하였다.

Shell의 同부문 수익은 85년 246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342백만달러로 급증하여, 農化學부문의 수익(120백만달러)을 제외하고도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

Amoco는 86년에 261백만달러의 이익을 시현, 85년에 비해 33.8%의 이익신장을 기록하였다. 85년에 불과 3백만달러의 이익을 냈던 Chevron은 지난 해에 무려 108백만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石油化學부문에서 85년에 5백만달러를 벌었던 Texaco는 同부문에서 지난해에 56백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Phillips의 化學부문 이익은 85년 219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299백만달러로 증가하여, 36.5%의 이익신장률을

기록하였다.

Kerr-McGee는 85년 化學부문에서 12백만달러의 순이익을 낸데 반해 86년에는 30백만달러의 이익을 시현했다. Occidental의 同부문 이익은 85년 91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132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ARCO계열의 Lyondell 石油化學은 85년에는 25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나, 86년에는 132백만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石炭 및 鑛物

25개사의 石炭 및 鑛物부문의 순이익은 회사별로 차이가 많다. Exxon의 石炭部門수익은 美西部지역의 판매량감소로 85년의 35백만달러에서 86년에는 24백만달러로 감소하였다. 同社의 鑛物部門은 85년 21백만달러의 赤字에 이어 86년에도 12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다.

Chevron은 鑛物部門에서 85년 166백만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나, 86년에는 39백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86년도 순이익의 일부는 오일세일資產의 처분에 따른 稅制혜택으로 인한 것이었다.

ARCO의 石炭부문 수익은 85년 58백만달러에서 76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石炭판매량이 9%나 감소하였으나, 운영비의 절감과 인도네시아의 石炭투자지분의 판매이익 15백만달러로 충분히 상쇄되었다.

Sun의 石炭부문 수익은 39백만달러로 85년에 비해 9백만달러 감소하였다. Occidental은 石炭부문에서 85년에 3.2백만달러의 순이익밖에 올리지 못했으나, 86년에는 20.6백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하였다. 同社は 石炭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의 증가덕분으로 대폭적인 이익증가를 시현하였다.

Kerr-McGee의 石炭부문 순이익은 85년 88백만달러에서 78.7백만달러로 감소하였다. □ (OGJ 87. 3. 23)

자원이 따로 없다

절약이 자원이다